

Strategy Idea

본 자료의 원본은 2022년 11월 9일 발간된
[2023년 전망 시리즈 13 - 전기전자/IT부품장비: Rebuilding] 임



▲ 전기전자/IT 부품장비
Analyst 양승수
02. 6454-4875
seungsoo.yang@meritz.co.kr

2023년 전망 시리즈 13 (해설판) [전기전자/IT부품장비] Rebuilding

- ✓ 스마트폰 시장은 과거와 다른 '상저하고' 흐름으로 판매량 회복과 함께 재고 감소 국면 진입을 통한 주가 상승 기대
- ✓ MLCC업체들의 주가는 전장 시장의 성장으로 하방이 높아진 상황, 매크로 환경의 회복이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스마트폰 시장의 기저효과와 함께 본격적인 시장 환경 회복 전망
- ✓ 애플의 아이폰15 울트라 폴디드줌 카메라모듈 채택을 시작으로 폴디드줌 시장의 확산 전망
- ✓ 반도체 수급 이슈 해소와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전장 카메라의 본격적인 탑재 확대 기대
- ✓ VR기기 신제품 출시의 의의는 판매량 확대보다는 생태계 선점. 관련해서 내년 공개되는 애플과 메타의 신제품에 주목
- ✓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를 시작으로 DDR5용 기판으로의 세대 교체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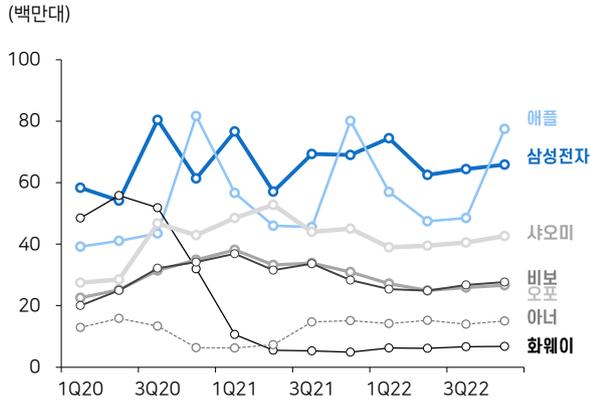
Part 1 스마트폰 시장 전망 '상저하고'

3Q22 스마트폰 출하량은 2.97억대(+2.1% QoQ, -9.2% YoY) 기록했다. 코로나 충격 후 잠깐의 수요 회복을 기록했던 작년 3Q21 이후로 5개 분기 연속 전년대비 역성장장을 지속 중이다. 2022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12.3억대(-9.5% YoY)를 예상한다.

스마트폰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 잠깐의 수요 반등을 제외하고 사이클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왔다. 연말 모든 시장조시기관들과 세트업체들은 교체주기 등을 고려, 다음해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을 예상한다. 이에 맞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부품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데, 특히 올해는 작년에 중국 업체들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이슈로 부품 부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부품을 확보하였다. 이로 인해 연초에 대량의 부품 재고가 축적된 상태로 한해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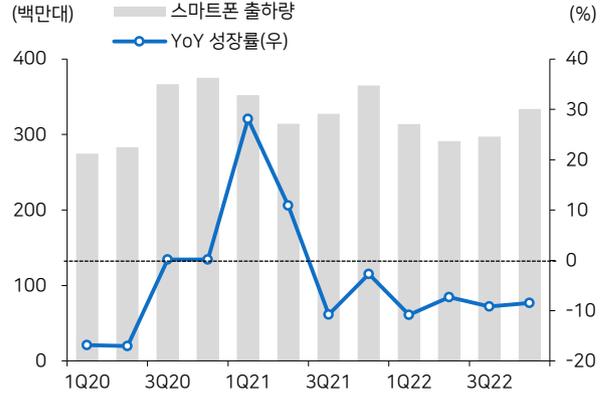
그러나 연말의 기대감이 실제 출하량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교체주기는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고, 스마트폰 실수요는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올해를 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주요도시 락다운,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인상 등으로 가파르게 판매량이 악화되었다. 판매량 부진은 출하량 둔화로 이어지며 글로벌 스마트폰 세트사 누적 재고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이렇게 되면 연초 대량의 부품 재고를 축적한 상황에서, 이후의 부품 조달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오더컷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오더컷은 기대감 대비 낮은 실적으로 올해 스마트폰 업황의 주가 부진을 야기시켰다.

그림1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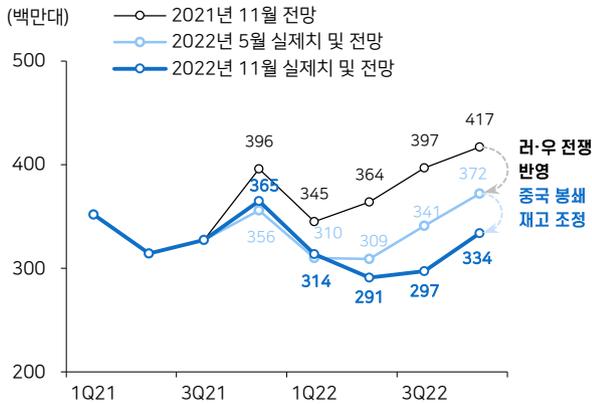
주: 4Q22E는 당사 전망치
 자료: SNE리서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요 스마트폰 업체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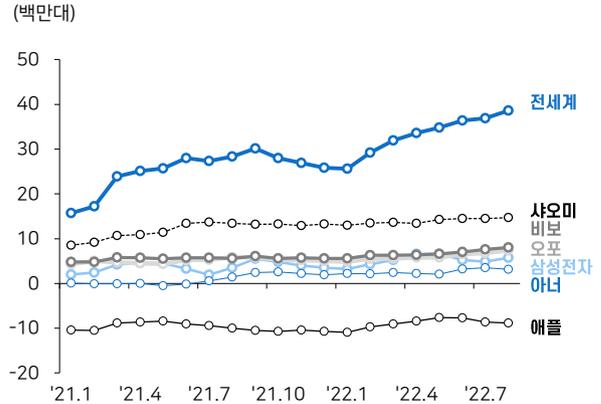
주: 4Q22E는 당사 전망치
 자료: SNE리서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시기별 출하량 전망치 변화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업체별 누적 스마트폰 재고 현황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3년에 스마트폰 시장의 반전을 기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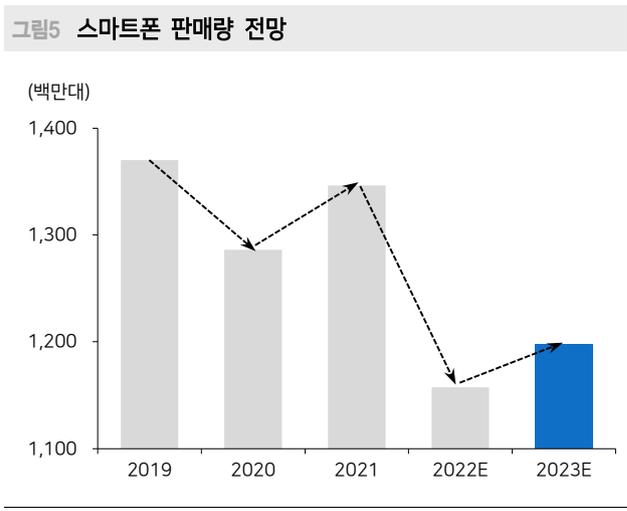
1) 채널재고 소진 기대감 유효

올해 스마트폰 시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채널재고의 소진(Sell-through의 회복), 즉 스마트폰 판매량의 회복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내년 판매량 측면에서 소폭 회복이 예상된다.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1) 당사는 내년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1Q23에 바닥을 형성한 후 회복하는 상저하고 흐름을 예측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매크로 환경과의 상관관계가 높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수요도 거시경제 회복에 발맞춰 내년 하반기에는 소폭 회복하는 상저하고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다. 2)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봉쇄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판매량이 예상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수요로 연결되지 못한 일부 이연 수요가 내년 판매량 회복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내년 스마트폰 판매량은 11.9억대(+3.5% YoY)로 소폭 회복이 예상된다.

표1 글로벌 경제전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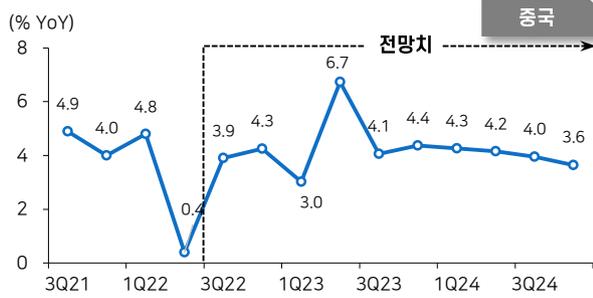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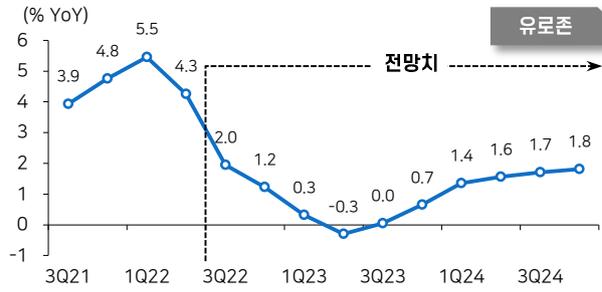
(% YoY)	2019A	2020A	2021A	2022E	2023E	2024E
GDP 성장률						
World	2.9	-3.1	6.1	3.0	2.0	2.5
선진국	1.7	-4.5	5.2	2.5	1.0	1.6
미국	2.3	-3.5	5.7	1.9	0.8	1.5
유로존	1.3	-6.7	5.2	3.2	0.2	1.6
일본	-0.2	-4.5	1.7	1.5	1.0	1.2
신흥국	3.7	-2.0	6.8	3.8	3.6	4.0
중국	6.1	2.3	8.1	3.4	4.5	4.0
한국	2.0	-1.0	4.1	2.6	1.7	2.0
CPI 상승률						
World	3.5	3.2	4.7	8.8	6.4	4.0
미국	1.8	1.2	4.7	8.0	3.9	2.2
유로존	1.2	0.3	2.6	8.2	5.7	2.3
일본	0.5	0.0	-0.2	2.2	1.5	0.8
중국	2.9	2.5	0.9	2.2	2.4	2.2
한국	0.4	0.5	2.5	5.1	2.9	2.2
환율 (기말)						
달러/유로	1.12	1.22	1.14	1.02	1.07	1.1
엔/달러	108.6	103.2	115.0	142.0	137.0	135.0
위안/달러	6.96	6.53	6.36	7.15	6.85	6.65
원/달러	1,156	1,086	1,189	1,400	1,330	1,300
WTI (달러/배럴, 기말)	61.1	48.5	75.2	80.0	80.0	85.0

자료: IMF,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주요국 분기별 경제전망 (전년대비 기준)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2) 판매량 회복 → 재고 정상화 가속 → 재고 감소 국면 진입을 통한 주가 회복

소폭의 판매량 회복만으로도 내년 하반기 스마트폰 및 관련 부품 재고 정상화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핵심 이유로 1) 당사 매크로 지표에 의하면 IT 재고와 매크로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0.8이다. 매크로 환경의 회복은 IT 재고 회복의 주요 선행 지표 중 하나로 매크로 환경 회복에 의해 재고 정상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2) 작년과 달리 올해 세트 업체들이 내년 업황에 대해 보수적인 빌드업을 계획하고 있다. 낮은 기대감으로 이미 출하량이 조정된 상황에서 판매량 회복은 재고 정상 수준으로의 조정 복귀 가속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바닥 국면에서 일부 수요 반등이 관찰될 경우 부품 주문량은 재증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스마트폰도 결국에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주가와 재고와의 상관관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재고 사이클로 스마트폰 시장을 구분했을 때 기존 스마트폰 시장은 연초의 높은 출하량과 지속되는 낮은 판매량으로 1~2분기 재고누증 국면에 머물고 3~4분기에 재고 수축 및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로 인한 지속적인 오더컷으로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부진했다. 반면에 내년은 올해 하반기부터 출하량 조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빠른 연말~1분기에 재고 수축 국면에 진입하고, 하반기 판매량 회복과 함께 재고 감소 국면으로 진입하는 기존과는 다른 사이클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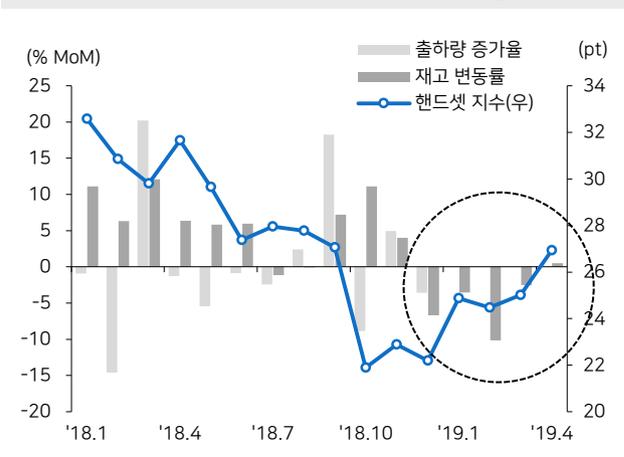
과거 19년 초에도 출하량이 부진했음에도 재고 감소가 진행되면서 핸드셋 지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고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출하량 측면에서 스마트폰 업황은 큰 폭의 회복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당사가 예상하는 2023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과 유사한 12.3억대 (+0.3% YoY)이다. 다만 전체적인 낮은 기대감을 바탕으로, 소폭의 판매량 회복과 함께 재고 감소 국면으로의 빠른 진입을 통해 주가적으로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전망이다.

표2 주요 세트 업체들의 빌드업 계획

(백만대)	21년말→22년 빌드업	22년말 → 23년 빌드업
삼성전자	286	294
애플	225	230
샤오미	215	180
오포	200	110
비보	149	115
아니	70	65
기타	264	270
Total	1,409	1,264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과거 재고 감소 국면에서 핸드셋 지수는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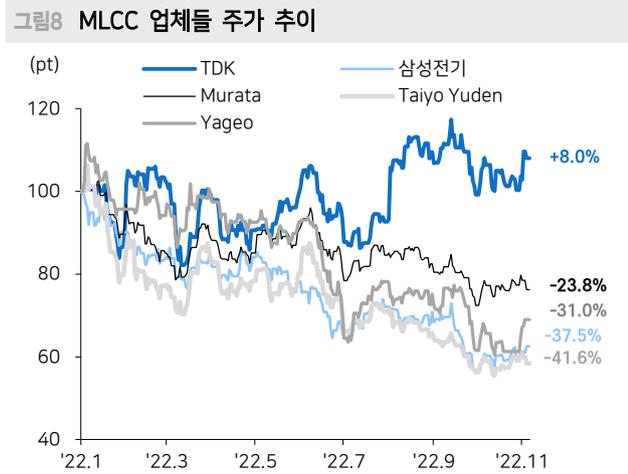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Part 2 MLCC 시장 ‘튼튼한 전장’ + ‘스마트폰 기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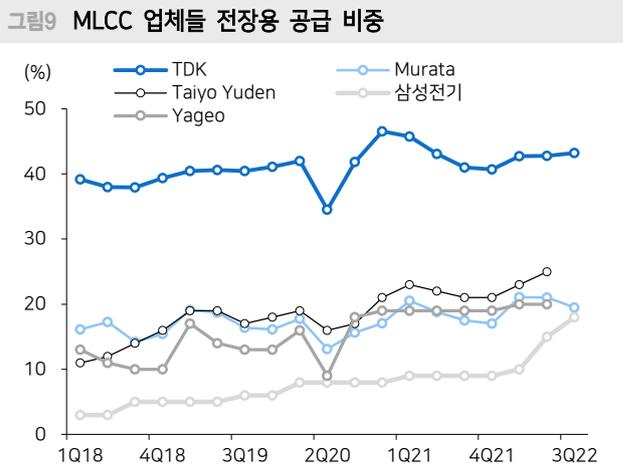
두각을 나타내는 전장용 MLCC

올해 MLCC 업체들은 MLCC 전체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IT 세트 시장의 부진과 함께 부진하였다. 글로벌 MLCC 업체들의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역대 최고 수준, 주가 수준은 최근 2년 기준 최저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다만 일본의 TDK는 경쟁 업체 대비 비교우위의 상대주가를 기록 중이다.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MLCC 업체들 중 유일하게 우상향을 기록 중이다. TDK와 다른 MLCC 업체들의 차이점은 전장용 MLCC의 공급 비중이다. 3Q22 기준 TDK의 Passive Components 사업부 내 전장용 공급 비중은 43.2%로 다른 업체들의 두 배 수준이다. 전장용 MLCC는 업황도 IT용 대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1) 전장용 공급 비중이 높은 TDK의 Passive Components 영업이익률은 19.4%로 전사 영업이익률(12.4%)의 1.6배 수준이다 2) 최근 일본 업체들의 실적 컨콜에서 TDK만이 영업이익 가이드를 상향하였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장용 MLCC는 업황이 양호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성장을 인정받고 있다.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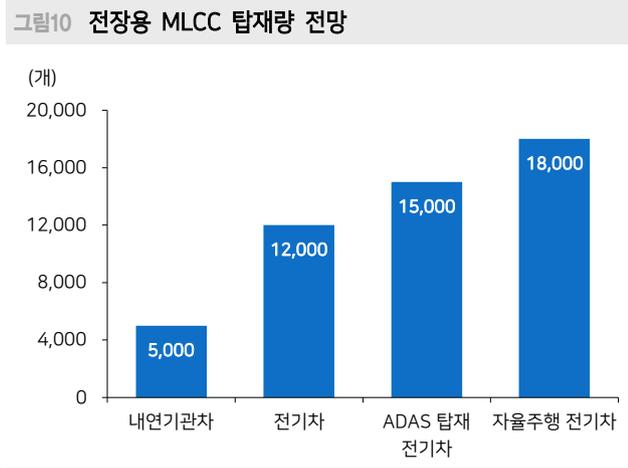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P와 Q의 동시 증가 → 전장용 MLCC의 성장성이 인정받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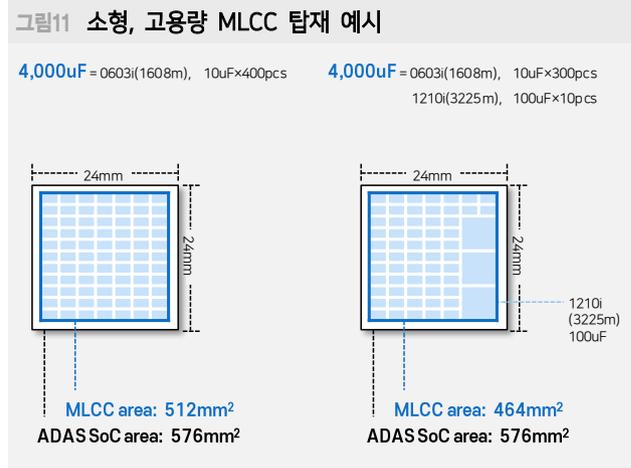
전장용 MLCC의 성장성이 인정받는 이유는 탑재량과 가격 측면에서 동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탑재량 측면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확대 과정에서 1) 자동차가 과거의 기계식으로 제어되던 부분이 전자식으로 제어가 필요하고 2) 카메라 등 쏟아지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IC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MLCC가 비례해서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내연기관차에서는 3,000~5,000개 가량 MLCC가 사용된다. 그러나 전기차에서는 최소 12,000개의 MLCC가 필요하고 ADAS 기술 탑재에 따라 추가로 3,000개, 향후 자율주행 기술에 따라 3,000개 이상의 MLCC가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장용 MLCC의 평균적인 ASP는 IT용 대비 3~4배 높다. 이는 전장용 MLCC가 고신뢰성, 장수명, 고전압, 고내구성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전장용 MLCC는 높은 ASP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는 추가적인 기술 발전을 통한 ASP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장용 기판의 고도화에 따라 현재의 대형, 저용량 전장용 MLCC가 소형, 고용량 MLCC로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장용 MLCC의 ASP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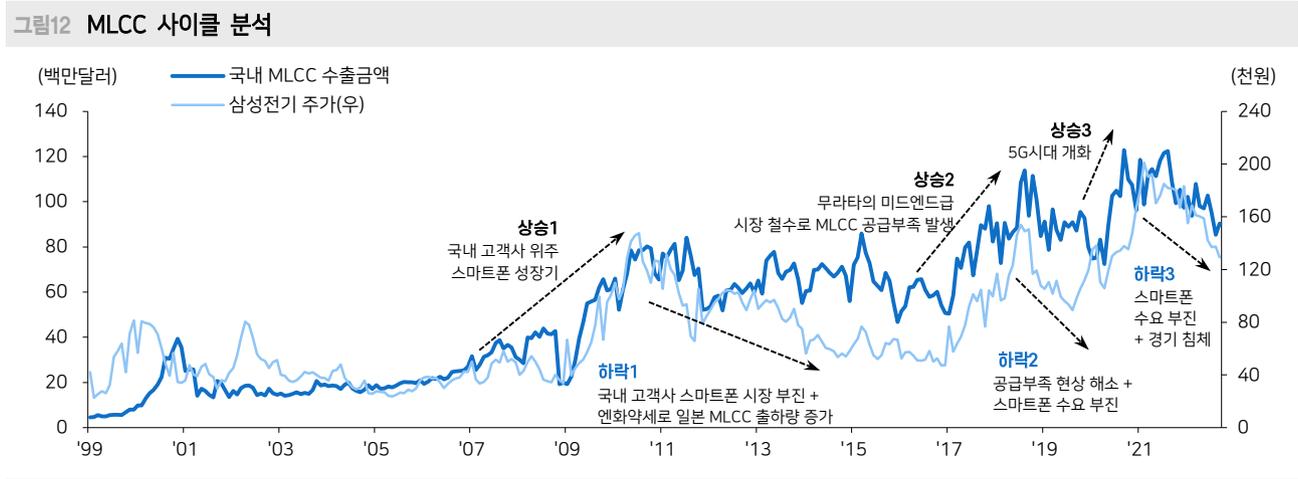
자료: TrendForc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삼성전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MLCC 주가 전망

MLCC 업체들의 주가는 MLCC 수출금액과의 상관관계가 높다 (삼성전기 0.84, Murata 0.89).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둔화에도 전장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 MLCC 수출금액은 하방이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스마트폰의 부진으로 수출금액의 상승은 제한적인 상황인데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이 동반된다면 가파른 수출금액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련해서 매크로 환경의 회복과 기저 효과가 더해지는 내년 3분기 이후에는 상대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출하량 회복과 함께 가파른 MLCC 수출금액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MLCC 업체들의 주가는 MLCC 수출금액 반등시점을 2~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MLCC 업체들의 주가 반등이 나타날 전망이다.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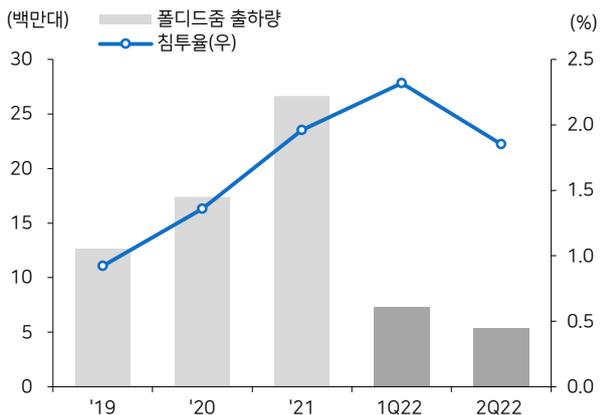
Part 3 2023년 이슈 점검

애플의 아이폰15 울트라 폴디드줌 채택을 시작으로 폴디드줌 시장 확산 전망

선두업체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 줌과 동시에 탑재율이 증가할 신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한다. 해당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폴디드줌 카메라 모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폴디드줌이란 광학줌의 일종으로 프리즘을 이용해 빛을 굴절, 렌즈를 좌우가 아닌 상하로 배치하는 기술이다. 디자인적으로 카메라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최소화하며 기능적으로는 3배 이상 광학줌을 구현한다. 다만 1H22 기준 폴디드줌 수요는 1,270만대(칩투울 2.1%)로 추정되며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갤럭시 S 시리즈 울트라에만 사용하고 있고 중화권에서 적극적으로 폴디드즘을 사용하던 화웨이가 사실상 퇴출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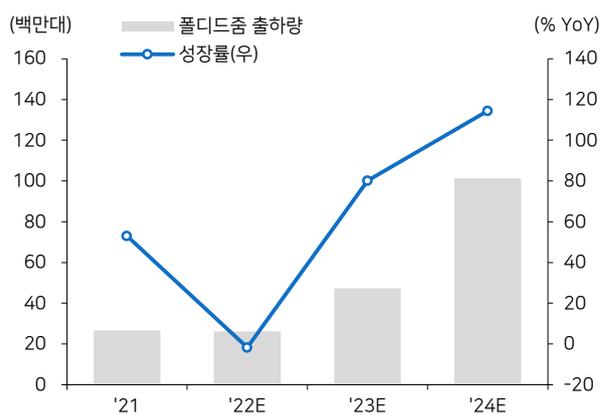
폴디드즘의 터어라운드는 2023년이 될 전망이다. 2023년에 출시될 애플의 최상위 모델 아이폰 15 울트라에 폴디드즘 카메라모듈이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애플의 신제품 출시 이후 삼성 또한 하드웨어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유지를 위해 폴디드즘의 추가 채택이 유력하다고 판단한다. 이로 인해 폴디드즘 출하량은 2023년 4,720만대(+80.2% YoY), 2024년 1억 130만대(+114.4% YoY)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폴디드즘 관련 주요 공급사는 LG이노텍(액추에이터+카메라모듈), 삼성전기(카메라모듈), 엠씨텍스(액추에이터) 자화전자(액추에이터), 액트로(액추에이터), 옵트론텍(액추에이터+프리즘) 등이 있다. LG이노텍의 경우 애플향 폴디드즘 액추에이터 단가(10불 추정)가 기존 OiS 액추에이터(5불 추정), 삼성향 폴디드즘 액추에이터(7불 추정) 대비 판가가 높기 때문에 아이폰15 울트라 망원 카메라모듈의 단가 상승으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그림13 폴디드즘 출하량 추이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폴디드즘 출하량 전망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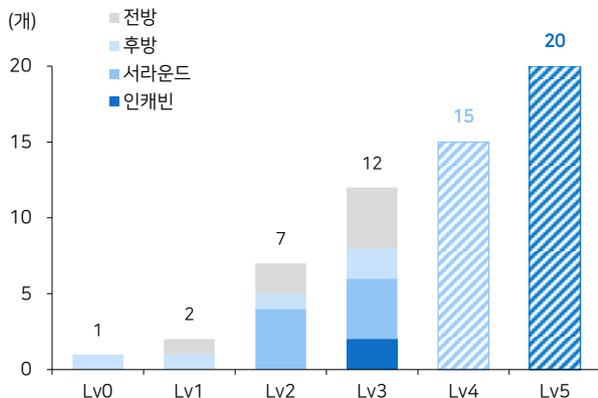
전장카메라 본격 성장

2023년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업체들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은 전장카메라가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더 많고 정확한 차량용 센서가 필수인데 차량용 센서 중 카메라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① 카메라만이 색상 인식이 가능한 유일한 센서이고 ② Tesla, Mobileye등 자율주행을 주도하는 업체들이 카메라 중심의 자율주행 구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카메라모듈 시장 내에서의 전장 카메라 비중은 '21년 7.4%에서 '25년 22.8%로 급격한 상승이 기대되고 국내 전장 카메라 공급업체는 1) 자율주행 시장 발전에 따라 P와 Q가 동반 성장하는 구조적 시장 성장 국면에서 2) 전장 부품의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특성상 시장 성장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전망이다.

카메라 개수 기준 자율주행 Lv1은 평균 2개, 부분 자율주행인 Lv2는 6~8개의 카메라가 탑재된다. 조건부 자율주행인 Lv3부터는 10~12개의 카메라가 탑재되고 완성차 OEM마다 차이가 존재하나 자율주행 Lv4와 Lv5는 각각 15개, 20개 이상의 카메라가 탑재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전장 카메라 시장은 출하량 기준 '21년도 1.4억개에서 '30년도 5.1억개로 연평균 15.1% 성장이 예상된다. 가격 상승 요인은 두 가지인데 1) 자율주행 기술 발전 과정에서 뷰잉카메라→ 센싱카메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센싱 카메라의 ASP는 뷰잉카메라의 2.5배 수준이다. 2) 인식 정확도 향상과 인식 범위 확대를 위한 고화소화, 광각화에 따른 P 상승이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전장 카메라는 100만화소이나 1200만화소까지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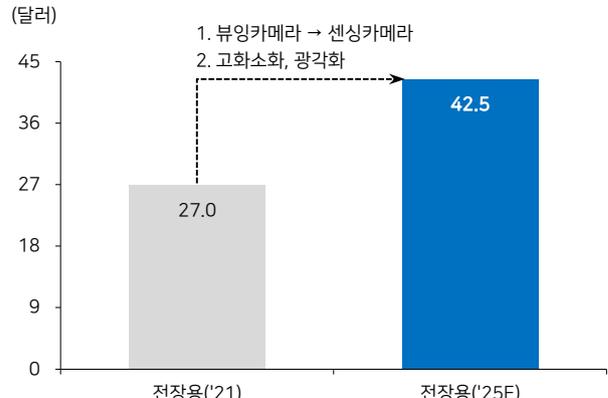
대표적인 국내 전장 카메라 주요 공급 업체는 LG이노텍, 삼성전기, 엠씨넥스, 세코닉스, 파트론이다. 전장 카메라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기준 세코닉스, 엠씨넥스, 파트론, LG이노텍(광학사업부), 삼성전기 순이다. 위의 업체들은 구축해 놓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전장 카메라 시장의 구조적 성장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전망이다. 중장기로 계약을 진행해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한다는 점도 향후 성장성 확보에 긍정적이다.

그림15 자율주행 레벨 별 전장 카메라 탑재 개수 증가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전장용 카메라 ASP 변화 전망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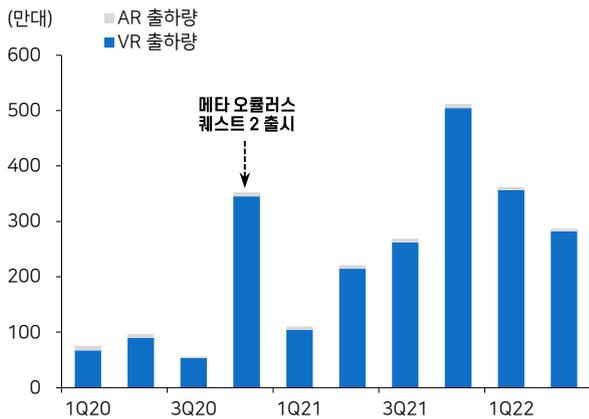
VR·AR기기 보급 확산

메타버스 산업 성장의 핵심은 하드웨어의 고도화이다. 플랫폼, 콘텐츠, 인프라가 최고 수준으로 갖춰진다 해도 현실에서 가상세계로 인도할 유형의 연결 매개체가 없다면 그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컨텐츠가 진화함에 따라 VR·AR 기기의 확산이 필요하다. 과거 넷플릭스가 OTT 시장을 개화시켰던 2016년, 전세계 TV 판매량 중 스마트 TV 판매 비중은 57.1%(+12.4%pt YoY)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시현했다. 메타버스 시장 본격화에 따라 하드웨어 기기인 VR·AR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Q22 기준 VR·AR기기 출하량은 286.9만대(-20.7% QoQ, + 29.8% YoY)로 메타가 2014년 2.3억달러에 인수한 VR 기기 제조사 오쿨러스(Oculus)가 2Q22 기준 전세계 VR 기기 출하량의 84.6%를 점유 중이다 (2020년 이후 누적 판매량 1,787만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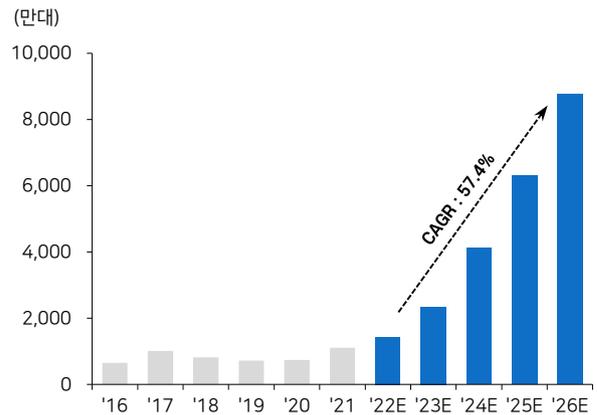
초기 시장인 만큼 향후 VR·AR 시장은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최근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는 2026년까지 VR·AR 장비 2500만대를 판매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VR·AR 장비 판매규모는 58만6,000대로 2,500만대 판매를 위해서는 연평균 113.6% 성장이 필요하다. Inside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VR·AR 장치의 출하량은 올해 1430만 대에서 2026년 8770만 대까지 향후 4년 연평균 57.4%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림17 2022년 상반기 기준 VR·AR 출하량 현황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VR·AR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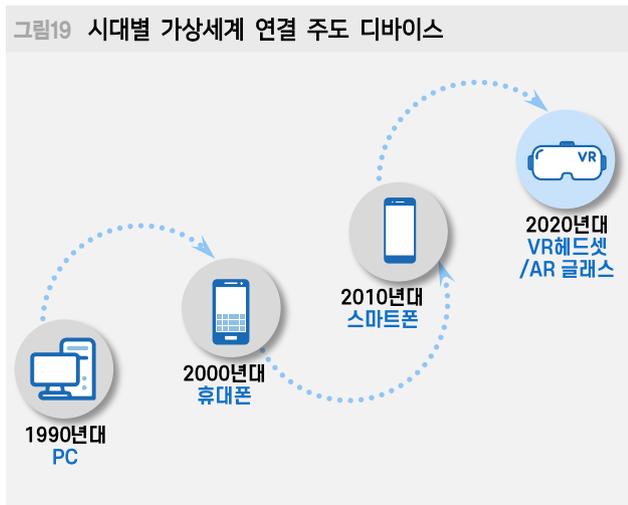
자료: Inside Intelligenc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VR·AR 디바이스 시장 선점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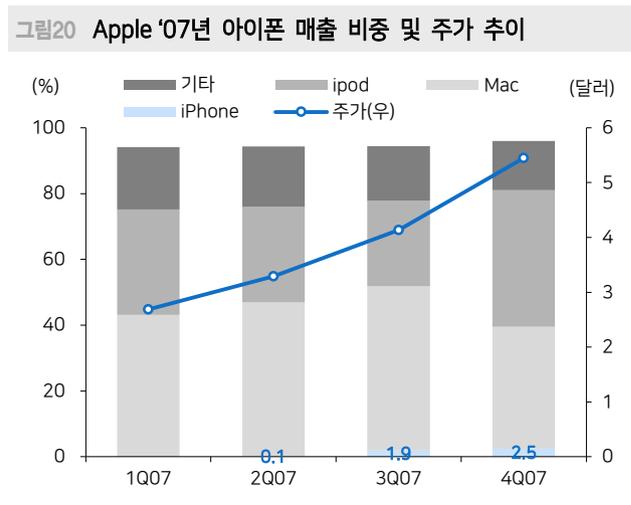
2023년은 가파른 성장에 앞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VR기기 출시 원년이 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Sony의 'PSVR2', Meta의 'Meta Quest 3', Apple의 'Reality One'의 출시가 예상된다. Sony의 'PSVR2'와 'Meta Quest3'는 저렴한 가격으로 VR기기의 대중화를, Apple의 'Reality One'은 VR/AR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외에 삼성의 '릴루미노 글래스2', MS의 '홀로렌즈 3' 등의 출시가 유력하다.

역사적으로 디바이스의 승자는 OS(운영체제)의 선점을 통한 생태계 전반을 선점한다. 과거 스마트폰에서 애플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 IOS(아이폰 운영체제)를 선점,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하고 누구나 아이폰 안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오픈 API라는 개념을 통해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한 시장 선점을 통해 개발자들의 생태계에 참여로 유용한 앱을 대거 출시하고 이는 아이폰의 이용 가치 상승과 아이폰 판매량이 증가하는 선순환을 구축하였다. 즉 플랫폼의 시대를 열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창조한 것이다. 다만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OS로 시장 양분화가 완료된 상황이다.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디바이스의 보급이 필연적이고 시장 선점을 통해 새로운 경제 시스템 창조하면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VR·AR 기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중이다.

과거 아이폰 최초 출시 시기인 2007년 애플의 주가는 134% 상승했으나 당시 애플의 아이폰 매출 비중은 2.5%, 글로벌 스마트폰 침투율은 3.4%에 불과하다. VR·AR기기 역시 초기 시장인 만큼 스마트폰 대비 판매량 및 실적 기여도는 미미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선점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VR·AR 기기는 지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 업체(뉴프렉스, LG이노텍, 나무가)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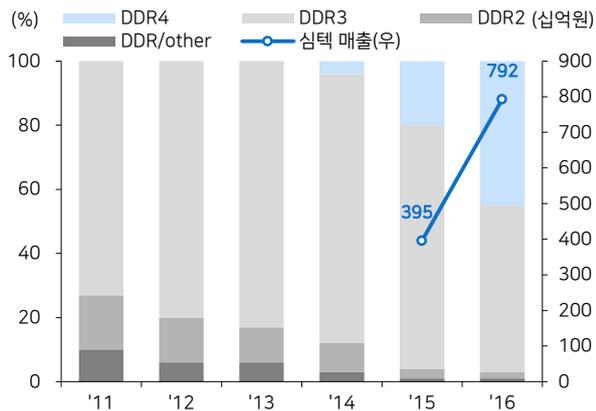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DDR5 출시 본격화

2023년 상반기 DDR5의 본격적인 출시가 예상된다. 인텔은 '초크 토크(chalk talk)'라는 사내 행사를 통해 내년 1월 10일 4세대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를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파이어 래피즈는 차세대 D램 규격인 DDR5 메모리를 호환할 수 있는 서버용 CPU이다. 서버용 CPU 시장 인텔의 점유율은 2Q22 기준 68.6%이다(AMD는 31.4%). AMD 또한 지난 2020년 전작 제3 라이젠 5000이후 3년 만의 신제품으로 DDR5를 지원하는 데스크톱용 CPU 라이젠 7000시리즈를 공개했다. DDR5는 기존 DDR4 대비 속도는 용량은 4배, 속도는 2배 이상. 전력 소모량은 10% 이상 낮음(1.2V -> 1.1V). 가격은 20~30%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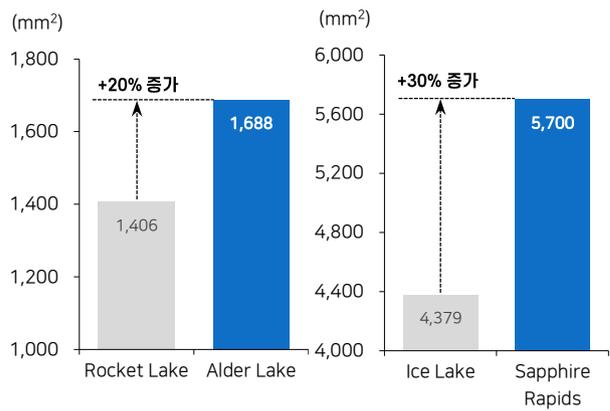
DDR5 출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기관 업체들(티엘비, 심텍, 대덕전자, 해성디에스)의 실적 및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DDR5는 DDR4와 규격이 다르고 데이터 전송량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D램 칩을 장착하는 반도체 기관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 DDR5는 기관의 층수가 증가하고, 칩을 부착하는 공정의 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관 업체 입장에서 수익성이 향상된다 (ASP 10~15% 상승) 2) 면적이 30%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개수의 기관을 수주해도 매출이 30% 상승 (Q의 상승 효과). 국내 기관 업체들 특성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즉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데, DDR5 전환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 방어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림21 DDR3->DDR4 전환 시기 기관업체 매출



자료: IC Insight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DDR5전환에 따른 기관 사이즈 증가 전망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